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하고 싶은 지혜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동행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소서.

찬양

1 주님 손에 맡겨 드리리(은혜의 찬양 91장)

주님 손에 맡겨 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주님 손이 나의 삶 불드네 나의 것 영원히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경배하리 경배하리라(×4)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2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찬송가 34장)

- 1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 2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 3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 4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말씀 읽기 열왕기상 3:16-28

- 16 그 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 17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 18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 19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 20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 21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젓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 22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 23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 24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 25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받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받은 저 여자에게 주라
- 26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 27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 28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본문 배경

솔로몬에게 판결을 요청하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집에 살던 두 여인은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여인의 품에 죽은 아이를 두고, 살아 있는 아이를 자기 품에 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죽은 아이를 안고 있던 여인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아챘습니다. 그 여인은 산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말했지만, 아이를 죽인 여인은 끝까지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두 여인은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자 솔로몬은 신하들을 시켜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산 아이를 둘로 나눠 두 여인에게 반씩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산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때 다른 여인은 아이를 그냥 반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 것을 요청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합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

고 재판한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24-25절)

답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두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해설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해 줄 목격자를 찾는 것이었으나, 그럴만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 두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지혜와 칼은 어울리지 않은 조합입니다. 칼은 무력을 상징하므로 솔로몬의 이런 명령은 일견 무자비하고 전혀 지혜롭지 못한 처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여인의 반응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한 여인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서 제발 죽이지만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왕의 말대로 나눠 달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진실은 판가를 낫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에게 있는 모성애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지혜는 본질을 꿰뚫는 힘이며, 숨겨진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2 솔로몬의 판결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28절)

답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해설 솔로몬의 판결 내용을 듣고 사람들은 그 지혜에 감탄한 것을 넘어 솔로몬을 두려워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28절). 백성이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주어진 은사입니다. 즉 이후에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재판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적용

1 내가 솔로몬이었다면 두 여인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8-3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욘기 12장 13절

채은진

♩ = 100

G B7 Em7 Dm7 G7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 있고 -

5 C G/B Am7 D7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 음 -

9 Em7 D/F# C C/D G
기 십이 장 십삼절 아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혜로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사건의 현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